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325

JCCT 2021-11-39

##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좀적 탈주 표현 연구 - 송하영 회화·오브제작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xpressions of Rhizomatic Escape by Deleuze and Guattari - Song Hayoung With a focus on paintings and objet works -

송하영\*

#### Hayoung Song\*

**요약** 연구자의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탈주체의 형상과 속성, 그리고 탈주 방식 등을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방식으로 제시한 리좀적 사유에 연결시켜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밝혀보았다. 연구자의 작품에 투영된 탈주체는 어떤 완성체가 아니며 언제나 변화와 생성을 전제하고 있는 질료와 같은 것이다. 이 탈주체는 유·무의식적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망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모순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긍정적 속성을 지닌 생성의 욕망이다. 탈주체에 이 욕망을 배치하게 되면 탈주를 감행한다. 이 탈주 방식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리좀적이다. 이것은 모순된 것을 해체하고, 외부와의 연결·접속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생성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리좀적 탈주체는 반복적 붓질을 한 색면과 결합된 오브제를 가변 설치하여 탈주하는 과정과 방식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탈주하는 탈주체들의 목표는 존재자들의 가치와 자유롭게 창조적인 삶을 인정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다. 이 탈주체들은 드넓은 초원을 유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생성하는 노마드이며, 모순된 사회에 저항하는 예술가, 문학가, 즉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개념으로 제시한 전쟁기계와 거리의 열정을 만들며 새로운 가치와 정치를 창안·창조하는 니체의 아곤 개념과 연결된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완전 해체하는 것이 아니며, 타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한다.

**주요어** : 탈주, 리좀, 노마드, 욕망, 생성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forms, attributes, and escape methods of post-subjects projected on the investigator's works in connection with rhizomatic thinking proposed as a way of social transformation by Deleuze and Guattari and examine their social connotations. Post-subjects projected on the investigator's works are not completed wholes of some sort, but like materials whose constant premise is change and creation. In the investigator's works, post-subjects have conscious and unconscious desire. It is the desire of creation with positive attributes including Deleuze's and Guattari's pursuit of changes in a contradicting society. When desire is deployed in post-subjects, they will carry out an escape. This way of escape is rhizomatic proposed by Deleuze and Guattari. It deconstructs contradicting things and repeats connection, contact, and severance with the outside world, building a new order. Rhizomatic post-subjects appearing in the investigator's works depict the escape process and method in abstract ways through the variable installation of objets combined with a color field of repeating brushes. In this work, the goal of post-subjects is to make a safe landing in a space where beings are recognized for their values and free and creative lives. These post-subjects are nomads creating a new landscape continuously, wandering around vast plains, and also artists and literary figures resisting a contradicting society. That is, they are connected to the concept of a war machine proposed by Deleuze and Guattari as a concept of social transformation and to the concept of Nietzsche's Agon to devise and create new values and politics based on street passion. They seek after a space where they can co-exist with otherness recognized rather than the complete deconstruction of the old order.

**Key words** : Rhizome, Escape, Post-subject, Nomad, Co-existence,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정회원, 홍익대학교 미술학 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8일

Received: September 30, 2021 / Revised: October 10, 2021  
Accepted: October 18, 2021  
\*Corresponding Author: 0shywmm0@naver.com  
Dept. of Art, Hong-ik Univ, Korea

## I. 서론

존재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경계지대라 할 수 있다. 이 경계지대는 강한 힘의 원리가 작동한 억압의 흔적이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 질서와 억압과 통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지대를 변화시키려면 그곳으로부터 탈주해야 한다. 탈주는 정체되거나 어떤 구조적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존 질서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하는 과정이다. 탈주는 동일성에 대한 부정하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탈주는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자체적인 힘, 단절, 외부와의 매개, 연결, 접속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탈주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물은 상반된 차이를 보인다. 탈주의 방법과 과정에서 동반된 환경에 따라 부정 또는 긍정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거나 아니면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탈주는 방법론이고 과정 또한 중요하다.

필자는 위와 같은 것에 주목하여 기존 구조적 모순에서 탈주하는 탈주체가 예술작품 속에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필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방법과 과정 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의 작품에 등장하는 탈주체는 비정주성, 이질성, 다양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질 들뢰즈(이하 들뢰즈)와 페릭스 가타리(이하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모델로 제시한 리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주제인 탈주체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대표적 사유인 리즘적 사유와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그것의 개념 및 형상과 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현 모순된 사회구조 속에서 탈주하는 탈주체가 회화적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그것의 형상과 탈주 과정 등을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 탈주체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볼 것이다.

## II. 리즘의 형상 및 속성과 기능

기존 질서의 변화를 위한 탈주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것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모델로 제시한 리즘 방식을 채택한다. 리즘은 식물학적 개념으로 줄기가 뿌리처럼 뻗어나가는 식물이다. 리즘은 주로 지층 사이 즉 땅속에서 형성되면서 줄기를 뻗거나 열매를 맺기도 한다. 이것은 수평으로 유동하면서 새로운 뿌리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뿌리는 또 다른 뿌리를 생성하고, 그것 역시 또 다른 뿌리를 생성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리즘은 지정된 점이나 위치가 없으며 팽창과 변이 등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고 하면서[1] 다음과 같은 특징과 구성 원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선 “연결·접속의 원리”이다. 그들은 “리즘이 어떠한 지점과도 연결·접속 될 수 있고 또 연결 접속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수목형과는 다르다”고 하였다.[2] 여기서 연결·접속의 상대는 내부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부적인 것이 강하다. 이 접속에 대한 것은 들뢰즈가 저술한 『의미의 논리』나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동 저작인 『안티 오이디푸스』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이항대립적인 이접(離接),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통일체로 귀결되는 통접(統接)과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즉 이 접속은 이항적이지 않고 두 항이 등가적으로 연결되어 또 다른 것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통일체도 없으며, 틀도 규격도 없다. 새로운 다양체만이 생성될 뿐이다.

다음으로 “다질성의 원리”이다. 이것은 리즘이 이질성과 이질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이질성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땅밑 줄기들이 땅밑의 또 다른 흐름들과 접속하여 하천이 흐르는 계곡 등에 접속하고, 이어 새로운 세계로 전개하면서 새로운 것을 생성해 나가는 것” 등이 그것이다.[3] 이것은 이질적인 것이 이질적인 모든 것에 대해 접속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접속을 통해 또 다른 이질성이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것은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한편으로 동질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셋째 “다양체의 원리”이다. 이것은 대상 안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통일성도 없고 주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통일성도 없다.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없는 것이다.[4] 따라서 이것은 다양체들이 어떤 하나의 중심, 일자 내지는 초월적인 것에 포섭되거나 포획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다양성은 어떤 하나의 척도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는 이질적인 집합체를 말한다. 이것은 어느 다양체에서 하나가 추가되더라도 전체가 변화

하는 다양성을 말하는 것으로 뿌리와 가지가 증식되어도 본질적인 것에는 변화가 없는 수목형의 다양성과는 차이가 있다.

넷째, “탈기표작용적인 단절의 원리”이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의 리즘은 어떤 곳에서든 단절되거나 파괴될 수 있으며, 자신의 특정한 코드를 따라 혹은 새로운 코드를 따라 복구된다.”고 하였다.[5] 따라서 이것은 어떤 주어진 코드와 연결을 끊고 벗어나서 새로운 코드를 따라 새롭게 복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절은 흐름을 일정한 틀에 따라 자른 것이 아니며, 외부와의 접속을 통해 새로운 것의 창조를 예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절은 절단과는 배치되며 연결을 함축한다.[6] 따라서 단절은 또 다른 연결과 변화를 예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 제작과 전사(轉寫)의 원리”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리즘에 대해 사본이 아니라 지도”라고 하였다.[7] 리즘을 모상이 아닌 어떤 방향성과 생성성을 제시하고 이끄는 지도로 여겼던 것이다. 여기서 지도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러한 지도가 아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자들의 성향 모습, 존재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과 방향성 그리고 경로, 장애물, 위험물 등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일종의 존재자들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다.[8] 그런데 “이 지도는 분해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으며, 끝없이 변형될 수 있다.”[9] 이것은 상황에 따라 존재자들의 행동에 대한 방향, 경로 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며,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지도 제작은 어떤 모상 즉 시뮬라크르조차도 지도로 바뀌 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에 나타난 모순을 새로운 지도 속에 포함하여 새롭게 바꾸어 나가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사는 사전적 의미로 베끼는 것, 옮겨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복제는 본뜨기 재현 또는 재생산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현이나 재생산은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해 버린다. 그러나 전사의 원리에 의한 복제는 다양성과 함께 변화로 귀결된다. 이 같은 원리는 데칼코마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물감을 칠한 그림을 대칭적으로 접어 제작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이 접히는 축을 기준으로 어떠한 조건과 힘에 의해 기존 그림과는 다른 형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데칼코마니의 특성인데, 전사의 원리와 연관된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전사의 원리에 대해 “항상 불연속, 단절, 다양체를 전제한다.”고 하였던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림 1. 송하영, 「리즘의 형태」, 2021  
Figure 1. Song Hayoung, 「Shape of Rhizome」, 202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리즘은 분자성 또는 질료성을 띤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연결·접속되면서 다양한 것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정형적이고 비정주적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리즘은 중심을 특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즉 이것은 중심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즘은 다양체들과 연결·접속을 통해 중심 또는 본질이 변화한다.

요컨대 리즘은 구조적인 틀, 질서, 유기체적인 통합 등을 거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리즘은 중심체는 물론이고 통일·서열·초월성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들뢰즈와 가타리가 “리즘에는 구조, 나무, 뿌리와 달리 지정된 점이나 위치가 없다”고 언급한 내용은 참고할 일이다.[10]

이상의 내용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리즘은 구조·위계적이면서 동일체적인 수목형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목형은 이항대립적, 즉 질료와 형상, 이데아와 현상계 등으로 나누어지면서 그곳에는 어떠한 중심이 자리 잡고 있다. 수목형에서도 리즘처럼 연결·접속은 일어나지만, 이것은 중심체 즉 근원이 변화하지 않는 어떤 초월성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모델로 리즘을 제시한 것은 이 같은 수목형의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이항대립적, 형이상학적인 사유체계를 해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단일한 중심성에서 다양한 복수성으로의 변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유는 그들이 『천개의 고원』 제3장 기원전 1만년(도덕의 지질학: 지구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서 언급한 기존 지층에서 탈영토화를 통해 새로운 영토를 창조하는 것 등과 연결된다.

리즘은 존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그곳으로부터 탈주하는 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세계를 생성해가는 여정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 이 리즘 개념은 포스트모던적 사유를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들뢰즈와 가타리 사유의 중심 또는 전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논지로 작동하는 탈주에 대한 방식인 리즘에 대한 특징과 구성 원리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연구자의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탈주체의 탈주 방식 및 형태와 원리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III. 리즘적 탈주 작품의 표현 분석

#### 1) 탈주체의 욕망 작동

그림 2의 주체는 탈주이다. 여기서 탈주는 기존의 모순된 경계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모델로 하고 있다. 존재자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경계지대라 할 수 있다. 이 경계지대는 강한 힘의 원리가 작동한 억압의 흔적이다. 이 때문에 경계지대를 부정적 이미지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경계지대는 부정성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다. 이곳은 사이 틈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결·접속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의·창조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잠재되어 있다. 그곳은 모호하면서 한편으로 카오스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는 어떠한 것이 확정되지 않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애매하면서 뒤섞여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경계지대라는 공간은 다양한 해석과 새로운 변화와 생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11] 즉 경계지대는 자체적 생성은 물론이고 그곳으로부터 탈주 내지는 외부와 연결·접속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은 오브제와 다양한 색면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것은 오브제에 반복적 붓질 작업을 통하여 탈주체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탈주체들은 어떤 완성체가 아니며 언제나 변화와 생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모델로 제시한 “질료”, “기관없는 신체”, “욕망” “욕망기계”와 연결된다. 즉 이것은 “분자나 원자 아래의 입자들, 형식이나 형태와는 거리가 있으며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자유로운 독자성들이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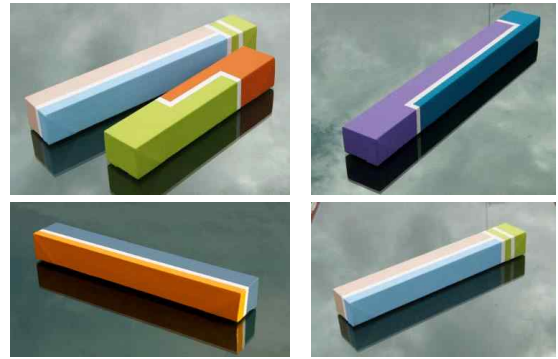


그림 2. 송하영, 「온도의 차이와 다양성Series」, Mixed media, 가변크기, 2020

Figure 2. Song Hayoung, 「Differences and Variety of Temperatures Series」, Mixed media, Variable Size, 2021

이들은 알과 같이 유기체화 되지 않는 즉 물리학과 생물학의 대상이 대기 이전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으로 이것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편집적이고 파시즘적인 상태에서 탈주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한 “분열적 주체”[13]와도 접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탈주체에게는 유·무의식적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망은 부정과 긍정성을 동반하고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욕망은 프로이드의 결핍에 오는 욕망이나, 라이히가 언급했었던 파시즘을 요구하는 욕망,[14] 존재자들의 욕망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자본의 욕망 등이라 할 수 있다. 후자는 들뢰즈와 가타리가 언급한 새로운 변화와 생성을 전제하는 욕망이다.[15] 이 욕망은 능동적이면서 생산적인 리비도의 욕망이며, 니체의 “힘에의 의지” 개념과 연결된다. 이러한 욕망들이 잠복되어 있는 탈주체들에게 긍정적 욕망을 배치하게 되면 연결·접속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변화와 생성을 위한 탈주를 감행한다. 여기서 단절은 접속을 예비하고 있다. 이 접속과 단절은 어떠한 규정도 규칙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어떤 현상과 정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변화해야 한다. 위 작품의 나타난 다양한 색면오브제는 이 같은 접속과 단절의 특개성을 드러낸 것이며, 그 색면 사이에 그어진 선들은 분절 또는 단절과 또 다른 이질적인 색면(다양체와 이질적인 것)과의 연결·접속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

#### 2) 리즘적 탈주

그림 3은 탈주체들이 탈주하는 형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의 벽면은 지구의 표면과 심층 사이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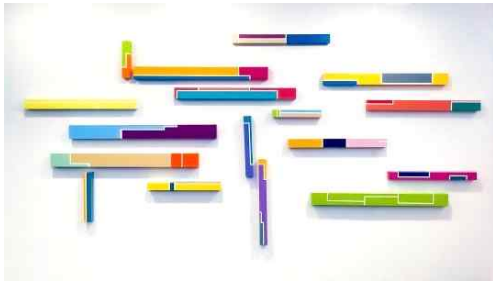


그림 3. 송하영, 「온도의 차이#3」, Acrylic on canvas, 가변크기, 2021  
Figure 3. Song Hayoung, 「Differences of Temperatures#3」, Acrylic on canvas, Variable Size, 2021

연결된 공간은 존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구라 할 수 있다.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탈주체들은 표면과 심층 사이에서 병렬적이면서 수평적으로 유동한다. 각각의 색면 오브제는 다양체와의 결합을 통해 생성된 것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탈주체가 다른 다양체와 다양하게 연결·접속을 통해 또 다른 다양체를 생산하는 과정의 연출인데 이것은 리즘적 형상이다. 한편 이 탈주체는 이질적인 것과 이질적인 연결·접속을 통해 생성된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이질체와 또 다른 이질체들과 접속과 단절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이질체를 창조한다.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이들은 어떠한 틀과 규정도 없다. 다만 상호 차이를 인정할 뿐이다. 이것은 들뢰즈의 차이와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개념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한편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탈주체들은 전사(傳寫)를 통해 수많은 탈주체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서 전사된 탈주체는 각각이 차이가 있으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전사된 탈주체는 원본이 없다. 기존의 형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원본이 필요 없으며[16] 따라서 사본도 아니다. 그 자체가 특개성을 지니고 있는 복수성을 지닌 시물라크르인 것이다.

여기서 탈주는 기존의 모순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강한 포획과 포섭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존재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감시와 통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직된 공간에서 유연한 곳으로의 이동이다. 이항대립적이고 유기체화되어 있으며 통일체적인 구조의 틀을 해체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체는 기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며 존재자들의 가치를 배척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 탈주는 모더니즘적 존재자에서 탈모더니즘하는 존재자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규격화되고 모순된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세계란 초월적인 공

간이 아니며 존재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인정하는 공간이다. 이 작품의 탈주체는 이러한 것에 대한 상징이고 실천적 성공을 위한 여정의 표현이며서 존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회구에 대한 로드맵이다.



그림 4. 송하영, 「온도의 차이#1」, Acrylic on canvas, 가변크기, 2019  
Figure 4. Song Hayoung, 「Differences of Temperatures#1」, Acrylic on canvas, Variable Size, 2019

이상의 특징을 지닌 탈주체들은 드넓은 초원을 유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맞이해가는 노마드라 할 수 있다(그림 4).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시도하는 개념으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전쟁기계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기존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는 자들이 아니며 거리의 열정을 만들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치를 창안·창조하는 니체의 아곤 개념과 상통한다.[17] 즉 그림 5과 같이 수목형과 리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본 작품에 등장하는 리즘적인 탈주체들이다.



그림 5. 송하영 「수목형과 리즘형의 상생의 공간」  
Figure 5. Song Hayoung, 「A space for coexistence of tree-type and rhizome-type」

#### IV. 결 론

연구자의 작품에 투영되어있는 탈주체의 형상과 속성, 그리고 탈주 방식 등을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방식으로 제시한 리즘적 사유에 연결시켜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작품에 투영된 탈주체는 어떤 완성체가 아니며, 언제나 변화와 생성을 전제하고 있는 질료와 같은 것이다. 이 탈주체는 유·무의식적 욕망이 존재한다. 이 욕망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모순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의 속성을 지녔다고 한 생성의 욕망이다. 탈주체에 이 욕망을 배치하게 되면 탈주를 감행한다. 이 탈주 방식은 리즘적이다. 이것은 모순된 것을 해체하며 외부와의 연결·접속과 단절을 반복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탈주체는 탈주하는 과정과 방식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에서 탈주하는 탈주체들의 목표는 존재자들의 가치와 자유롭고 창조적인 삶을 인정하는 공간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이다. 이것은 드넓은 초원을 유동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맞이하는 노마드이며, 모순되고 인간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사회에 저항하는 예술가, 문학자, 즉 들뢰즈와 가타리가 사회 변혁의 모델 개념으로 제시한 전쟁기계와 거리의 열정을 만들며 새로운 가치와 정치를 창안·창조하는 니체의 아곤 개념과 연결된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완전 해체하는 것이 아니며, 타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희망한다.

## References

[1]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p. 47~48, p. 54, 2003.

[2]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19, 2003.

[3]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20, 2003.

[4]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21, 2003.

[5]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24, 2003.

[6] Park Youngwook "Derrida & Deleuze On the border between meaning and meaninglessness," *gimm-young Publishers*, p. 115, 2009.

[7]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30, 2003.

[8] YI Jinkyung, "Nomadism 1," *Humanist*, p. 106, 2002.

[9]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30, 2003.

[10]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21, 2003.

[11] Kim Yejin·Lee Gyoobaek, "A Study on the Ambiguity of Boundaries based on a Visual Perception,"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 1.13 No.5*, pp. 62~63, 2012.

[12]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translated by Kim Jaein, *saemulgyul Publishing House*, p. 92, 2003.

[13] Chun Kyungkap, "The Control of Desire and Escape - From Spinoza to Deleuze," p. 234, pp. 240~243, 2004. Please refer to.

[14] Choi JinA, "Philosophical meaning and value of Deleuze's ontology of desire :Becoming, creation, and practice and revolution as practical imperatives," pp. 270~271, 2016.

[15]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Anti-Oedipus," translated by Kim Jaein, *Minumsa*, pp. 61-62, 2019. Deleuze and Guattari said that desire is produced in reality.

[16] Park Chungja, "The age of simulacra," *Book publishing, guiparang*, p. 211, 2019.

[17] YI Jinkyung, "Nomadism 2," *Humanist*, p. 298, 2002.